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마 27:11-26)

Pontius Pilate's Judgment

(Matt. 27:11-26)

본문은 예수님의 수난사건 중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재판 사건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역사적으로 유명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includes Pontius Pilate's judgment on the suffering of Jesus. Because of this judgment incident, Pontius Pilate historically became a well-known person. In fact, he did his best to release Jesus in his own way. On the contrary, those who shouted to crucify Jesus were the chief priests, the elders, and Jews.

1.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

빌라도는 로마의 집정관으로 유대 나라 총독으로 발령 받아 AD 26~36년 10년 동안 일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발생함으로 피치 못하게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발령 받은 총독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식민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에 복종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려 600년 가까이 세계를 통치하며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문제에 관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1. A character who is Pontius Pi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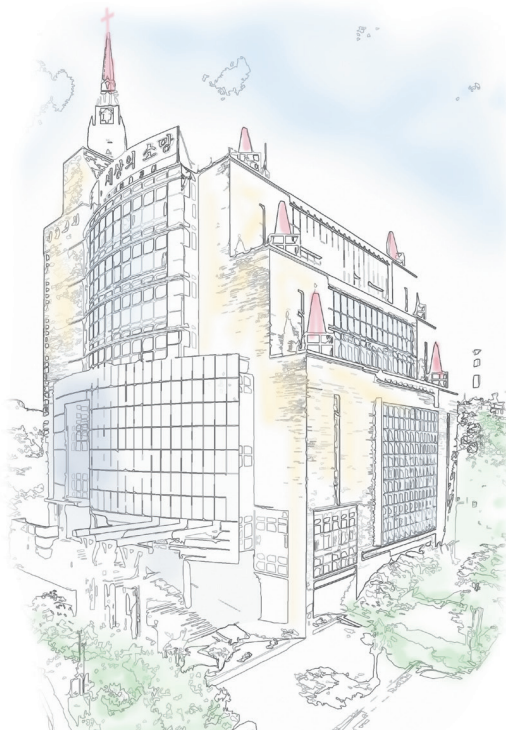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Pilate, as a Roman consul, was officially appointed to a governor of Jewish people and worked for ten years at AD 26-36. At that time, since Jesus incident had occurred, Pilate had to take care of Jesus' judgment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most important work of governor appointed by the Roman Government had to make colonial people not to disturb and live their life to obey the Roman Government.

The Roman Emperor ruled all over the world for almost 600 years and gave the colonial country its autonomy.

Pontius Pilate did not particularly want to intervene in Jesus Christ problem. Nevertheless, because the Jewish law court had no authority to sentence the death, they sent him to Pilate and let him sentence death.

2. 빌라도의 갈등

사복음서 곳곳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19절).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고 남편에게 제발 예수를 놓아주라고 했고 이에 빌라도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꿈처럼 오고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죄명을 쓰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2. Pilate's conflict

In several parts of the four books of Gospel, it appeared that Pilate tried to release Jesus. "While Pilate was sitting on the judges' seat, his wife sent him this message-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innocent man, for I have suffered a great deal today in a dream because of him" (v. 19). Since Pilate wife dreamed and told him a message to release Jesus, Pilate had a heavy conflict. However, at last, Pilate had no choice to sentence Jesus Christ to death, and like his wife's dream, through the coming in and out generations, he was infamous for killing Jesus Christ on a charge of fraud and really became cursed by the worldly people.

3. 빌라도의 재판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며 빌라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12절). 이 말에 덜컥 겁이 난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주님을 내주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위치나 자기의 안위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므로 안전을 얻을 줄로 알았지만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 Pilate's Judgment

Jews said that if Pilate would release Jesus, he was the man who would turn his back to Emperor Caesar, and they hung persistently onto Pilate (v. 12). Pilate who suddenly was seized with fear for this sentenced Jesus to death and gave the order to crucify him. Pontius Pilate did not have to choose his own political position or safety because he had to choose Jesus. He knew that he was safe because he sentenced Jesus to death, but in the end he fell into the eternal dea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은 잃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first of all choose Jesus. Though we think we lose something right now and suffer a loss, in the long run, Jesus recovers everything for us

By living your life always on Jesus side, for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blessed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8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열려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8학기

서울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레위기	목, 저녁 7:00~8:00	서명철 목사	602호
	역대기(구약의피노라마)	금, 오전 6:10~7: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9/6~11/22)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0~10/18)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6~12/13)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부	화, 오후 1:30~3:3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 어머니 하트 스쿨	목, 오전 10:30~12:30	구분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9/5~11/7)	양세라 목사	702호

2015 사명자대회 준비 시작하다

10월 4일(주일) ~ 11월 22일(주일)

새생명 축제 : 10월 23일(금) / 25일(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6일(월) ~ 11월 21일(토)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50일전부터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해마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하므로 교회 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이에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5년 사명자대회를 10월 4일(주)~11월22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한다.

2015 사명자대회 주제성구는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이며, 새생명축제는 10월 23일(금) / 10월 25일(주) 양일간 이뤄진다.

또한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16일(월)~11월21일(토) 까지 「아버지의 마음」(롬8:15)이란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2015 사명자 대회 조직

- 대 회 장 : 박노철 목사
- 지도교역자 : 장석남 목사 배경애 전도사
- 본 부 장 : 오광환 장로
- 차 장 : 신봉하 김상태
- 진행분과 : 송영준 / 임승한
- 전도분과 : 이민호 / 교구간사 선교회장 전도회장
- 기도분과 : 최원석 / 이길재 손용문 김승록 김경애
- 교육분과 : 김장섭 / 장윤기 윤동수 김도훈 김광태 김광옥 최승환 윤종덕 임병권
- 홍보분과 : 홍창훈 / 유은경 신민규
- 재정분과 : 노창훈
- 안내분과 : 황병석 / 안내위원
- 봉사분과 : 이성애 / 제2권사회
- 차량분과 : 차도훈 / 차량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2)

(문 182) 사도 바울이 고전 3:19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욥5:13)을 인용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말을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욥42:7)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난해한 질문입니다. 전통적 해석으로는 엘리바스의 말은 영감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한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영감된 말씀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말이 진리라는 의미에서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Dewey Beegle, Tradition and Infallibility, Grand Rapids: Eerdmans, 1973, p.194).

바울이 엘리바스의 말을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영감된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들 특히 마가, 누가와 같은 전도자들은 ‘기록된 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비록 욥에게 위로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진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욥12:3)고 했던 것입니다.

심한 고통에 빠진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욥10:3) 닥쳐오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욥16:12-13). 마치 주님을 못 박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욥11:50)라는 진리의 말을 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영감되어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요11:51)라고 요한은 주석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기록자 자신이 영감을 받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또는 불신자의 영감 되지 않은 중얼거림을 보고 형식으로 인용했는지 심지어 사탄이 한 말을 기록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무오성의 교리 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엘리바스의 말은 영감된 무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

2015바자를 준비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사랑의 바자!



주동재 집사 (바자기획부장)

우리 서울교회는 '2015 사랑의 바자'에서 교회주변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이 미용 봉사를 해드리며 건강 검진도 함께 해드립니다. 또한 파출소나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2015 사랑의 바자는 "이웃과 소통"을 주제로 이웃 주민, 이웃 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늘 기도하는 농어촌 100교회의 지역 특산물을 바자에서 판매함으로써 이웃 교회와의 소통을 실천합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꿀, 태양초 고추와 고춧가루, 해조류 등

을 사전에 다락방에서 예약을 받아 그들의 판로를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에서는 기여도도 적으면서 주변 상권과 마찰을 빚었던 위탁업체의 판매를 지양하며 기증, 기부되는 물품 중심으로 바자를 운영하면서도 일부 구색을 위해 필요한 품목은 이웃업체의 물건을 판매할 것입니다.

매년 바자 한 달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랑나눔운동을 조금 당겨 8월 초부터 실시하였으며 찬양대, 교회학교, 기도팀, 다락방 등 부서별로 약정이 이어져 참여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천사기부운동(은 성도 대상), 수익나눔운동(기업인 대상), 생활절제운동(교회학교 대상)을 전개합니다.

특히 바자의 본래 취지를 살려 성도들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바자를 운영하고자 천사기부운동을 강

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품 및 재활용품 (화장품, 식품, 잡화, 의류 및 소형가전, 생활용품, 중고휴대폰, 외국 동전, 우표, 기념 메달, 성경책)의 기증, 미술, 음악, 의료, 이미용의 재능기부와 성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등의 서비스 상품 기부도 적극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 사랑의 바자'는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과 함께 근검절약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바자,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바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 사랑의 바자 - 사랑나눔 기부(약정자)

(1교구) 안혜경, 심명숙 (2교구) 김찬진, 홍유라 (3교구) 김영주, 이해순, 유복진 (4교구) 김진희 (6교구) 주경자, 안오근 (7교구) 남영주, 전훈덕, 정혜순, 박길자 (8교구) 이봉선, 이의춘 (9교구) 김영자, 임인자, 곽 숙 (11교구) 이강인 (12교구) 홍하순, 오민세, 이현수 (13교구) 김영옥, 이경희3, 이미경 (14교구) 박정자 (16교구) 구연복, 김미선, 유영숙, 권성자, 한경신 (설교사역도교부) 안분선, 강창수, 고성숙, 곽태수, 김명심, 김미선2, 김애순, 김영애, 김정숙3, 김정제, 김지은2, 김태욱, 김흥두, 남상경, 남태순, 박명석, 박복순1, 박분옥, 박선희7, 박용성, 박화실, 안혜경, 오민정1, 육순자, 이선자1, 이순영, 장기숙, 장명순, 장항자, 전영돈, 전현주, 정춘혜, 조봉자, 진영숙, 최예순, 하정자, 함정희, 여현진, 서순희, 김연희, 김선자, 양원호, 강희자, 이상섭, 송민정, 이정연, 정훈희, 김미숙, 김명숙12, 김명자3, 김옥순, 박정자1, 이미경8, 박인혜, 이진리 (인도네시아선교사도교팀) 김희옥, 이승연, 김치삼, 오세복, 민경철, 이희완, 정진희1, 김미중, 김숙영2, 이경란2, 이영란3, 윤정희, 이미송, 조웅기, 박미정, 한효숙, 황성희, 황병서, 김경철2 (기타) 강창숙, 이은영, 무명



임마누엘 찬양대



중등부



설교도교팀



인도네시아 도교팀

2015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사명자대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봉하 집사 (사명자대회 차장)

서울교회 설립기념일 50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2015사명자대회가 10월4일(주일) 발대식을 갖고 시작됩니다.

10월23일(금), 25일(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새생명축제에 초대할 VIP(전도대상자)들을 기대하며, 작성하며, 기도하는 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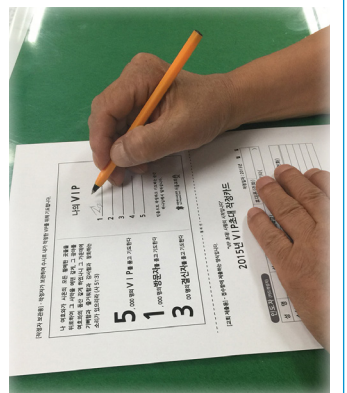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다음주일(9/6) I, II, III부 예배

시 VIP작성카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한 주간 마음으로 작성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는데 모든 성도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VIP작성 대상은 가족, 친척, 이웃 그 외 친분관계가 있는 믿지 않는 분들과 전년도에 작성하였으나 아직 결신하지 못한 분들을 재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2015사명자대회를 통해 25년 전 눈물로 드러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에 주셨던 사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와 함께하셔서 새생명축제가 천국잔치 될 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린프로그램 - 영성케어스쿨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섬김의 사역



박정임 권사 (7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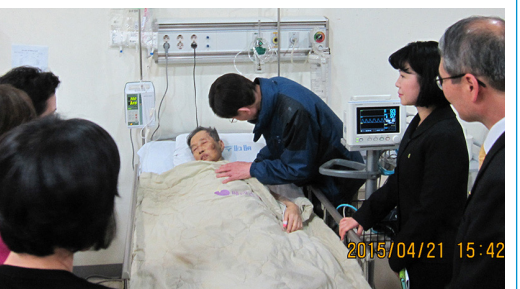
영성케어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케어하며, 고통을 당하는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귀한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기 위해 선두에 양세라 지도 목사님과 오치열 부장 장로님을 세우고, 오는 9월8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8주간 603호에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 후 전문 강사님들의 특강

과 교제 및 도고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앓고 있는 환우는 100 명이상, 최근 소천하신 성도님도 수십 명입니다.

엘린프로그램 영성케어 스쿨은 중증환우를 위한 믿음팀, 호스피스 환우를 위한 소망팀, 사별가족을 위한 사랑팀으로 분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건강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안과 밖에 몸이 너무 아파 힘든 환우에게 다가가 돌봐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분께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을

저희들의 은사가 아닌 사명으로, 도고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5/04/21 15:42

다락방리더수련회를 마치고

민임의 식구들



한예경 권사
(7교구)

다락방 리더 수련회 때 우리 다락방이 시연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못해요 못해요!”라며 도리질을 하였습니다. 박영준 교구목사님의 권면과 응원, 유문건 목사님의 자상한 지도로 평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자는 다짐으로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다락방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세 개구로 구성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지역상 넓은 분포로 거주지가 흩어져 있어서 개인 사정이 다양하여 모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에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 신년 노약자 심방하실 때,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모이기 힘들었던 분들과 연락

하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명단만 있던 다락방 식구들이었는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해서 함께 모여 참석하다 보니까 친숙함이 생겨 4명이 모이기 시작하여 현재 인원이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은 잘 하시지만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과 또 이사해서 오셨지만 다락방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희 다락방의 자람은 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전도해서 모여진 식구가 아니지만 기존에 다락방 식구이면서 사정상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을 권면하고, 이사 오신 분들이 원거리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락방이란 이름으로 모여 은혜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다락방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민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전국대회

남선교회 전국대회를 다녀와서



김종철 집사
(모세선교회장)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동안 강원도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창립 제 91주년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프로그램이 좋다고 소문났고, 타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장로님 2분 포함, 남선교회 회원 6명이 참석하였는데,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큰 대회였습니다. 2박3일의 짝 짜여진 일정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성의 있게 준비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지루할 겨를도 없이 감동, 환호의 일색이었습니다.

주제별로 준비된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내용은 신앙인으로서, 남선교회 회원으로서의 지식을 보충하기에 충분했고, 말씀 전파 시간을 통해서 오랜만에 부흥회 기분을 느낄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 “회개와 용서, 회개케 하소서”(창50:20~21)에 걸맞게 대회 기간 중 면면히 흐르는 회개와 반성의 분



위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반성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한국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외에서 자성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태도를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타교회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교회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자연에서 마음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회영역의 확장을 위해서도,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31일(월) 연세신학100주년기념 선교대회 축도를 한다. 9월 1일(화) 정직한기업 국민운동총법식에서 개회사를 한다. 9월 2일(수) 웨스트민스터신대원 입학담당관과 면담을 한다. 한국장로교 표준주석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9월 4일(금) 한국군 군목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9월 5일(토) 사랑의쌀운동 설교, IUB이사회 개회 설교를 한다.

■ 개인전: 15교구 전광영 집사 독일 뒤셀도르프 초대전시 백엔 에글랑겔러리 9월4일~10월31일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8.30) 뽕뽕전도회(9.6)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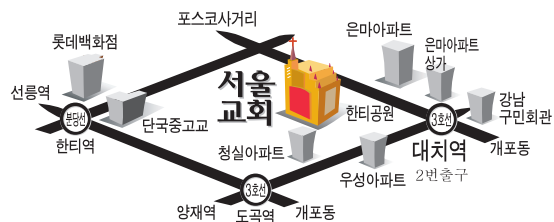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되도록
2.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과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3.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2015 사명자대회, 새생명축제가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새 벽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